

인도자 소그룹 교재

첫째 주 소그룹 모임

제목: 내 마음의 첫 자리!

1. 찬양과 여는 기도

찬송가/ 나 행한 것 죄 뿐이니, 새 274 장(통 332)

찬송가/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새 315 장(통 512 장)

복음성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2. 말씀본문 함께 읽기: 사무엘상 2:12-17

3. 여는 질문

어린 시절 저질렀던 일들 중 지금 와 생각하니 아찔했던 일(사고)에 대해 나눠 봅시다.

(인도자가 먼저 예를 들어 나누시면 좋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안 듣고 사고가 났을 뻔한 일이나, 시장이나 놀이동산에서 부모님 손을 놓고 잃어버렸던 기억 등등. 한 사람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샘플을 보여주면 좋습니다)

4. 본문이해 (돌아가면서 한 문단씩 읽도록 인도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당시 제사법에는 사람들이 고기의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 후에 오른쪽 가슴살과 뒷다리를 들거나(거제) 흔들어서(요제) 제사장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후에야 제사장은 그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흡니와 비느하스는 고기를 삶은 때에 갈고리로 가마에 찢러 걸려 나오는 것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가졌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를 원한다고 고기를 달라고 하기도 했고, 거절하면 억지로 빼앗기도 했습니다. 사환을 시킨 것을 보면 실수로 저지른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거룩해야 할 제사장으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더욱 과중했습니다. 또 그들은 한 두 번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될 정도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worship' 이라고 합니다. 워십은 '가치'란 의미의 'worth' 와 '신분'을 뜻하는 'ship' 의 합성어입니다. 즉, 예배란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일' 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공적인 예배 속에서만 최상의 찬송과 감사와 예물을 드릴 것이 아니라, 생활 속(일상)에서도 모든 일에 '하나님 먼저!' 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가정, 일터, 학교, 친구... 어디서든지 '하나님 먼저!' 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내가 좋아하는 것 먼저!' 의 마음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마치 온갖 종류의 죄들이 부담없이 들락거릴 수 있는 대로가 닦아진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5. 말씀과의 만남:

- 1)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나요? (12 절)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실을 그릇 행하게 되었다.)
- 2) 엘리의 아들들이 지은 죄들이 심각한 죄였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17 절)
(그들의 지은 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6. 삶 속으로 (적용질문 2 개, 각각 1-2 줄로)

- 1) 예배를 준비하고 대하는 마음에서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는 행동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
(예배시간에 습관적으로 늦는다거나, 토요일 저녁에 주일예배를 생각하지 않고 늦게까지 일정을 잡는다거나, 예배에서 드릴 감사헌금을 준비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일들 일 수 있습니다.)
- 2)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해 보았던 경험을 나눠 봅시다.

7. 암송구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상 2:217

8. 자녀와의 나눔 (40-80 자, 1-2 개)

- 1) 나는 매 주일예배를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헌금, 감사제목, 자는 시간, 옷, 준비 기도 등)

9. 기도제목 나눔

10. 찬양, 헌금, 헌금기도, 주기도

둘째 주 소그룹 모임

제목: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1. 찬양과 여는 기도

찬송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새 324 장(통 360)

찬송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새 528 장(통 318)

복음성가/ 주님 말씀하시면

2. 말씀본문 함께 읽기: 사무엘상 3:1-9

3. 여는 질문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장 불리고 싶은 호칭(애칭)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왜 그렇게 불리길 좋아하나요?

(인도자가 먼저 나눠 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1-2 분 정도로 샘플을 보여 주시면 좋습니다.)

4. 본문이해 *(돌아가면서 한 문단씩 읽도록 인도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무엘은 당시 열두 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오학년 정도의 나이이지만 당시에는 성인이 되는 나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원로 제사장은 엘리였고, 그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공식적인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는 노안이 와서 앞이 잘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까지 잃어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상)이 희귀했다는 기록은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들을 귀들이 없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거기에 소년 사무엘이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전의 성소에는 일곱 금촛대가 있습니다. 촛대에 하나님의 불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의 불은 항상 밝혀 놓아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있으면서 등불의 기름을 항상 채워

놓았습니다. 엘리는 영적인 눈이 멀어 있었지만 어린 사무엘은 깨어 있었습니다. 또 사무엘은 밤에 일어나 세 번이나 달려가는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이 자신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세 번씩이나 자신에게 온 것을 보고 비로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다”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세가 이루어진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상관하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방향을 주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며 대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친히 일하셨습니다.

5. 말씀과의 만남:

- 1)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은 밤에 눕는 장소(잠자리)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나요? (2-3 절)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여호와와의 전 안’에 누웠다)
- 2)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태도로 응답해야 한다고 하나요? (9 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태도로 말씀을 읽고 순종한 경험을 간단히 나눠보도록 해도 좋을 것입니다.)

6. 삶 속으로 (적용질문 2 개, 각각 1-2 줄로)

- 1) 잠을 자는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어떻게 갖고 있나요?
- 2)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

7. 암송구절: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상 3:9

8. 자녀와의 나눔 (40-80 자, 1-2 개)

- 1) 일 주일에 교회에 가는 날과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교회 예배당에 있을 때의 느낌은 어떤지 나눠 보세요.

9. 기도제목 나눔

10. 찬양, 헌금, 헌금기도, 주기도

셋째 주 소그룹 모임

제목: 하나님만 섬기라!

1. 찬양과 여는 기도

찬송가/ 예수 따라 가며, 새 449 장(통 377)

찬송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새 325 장(통 359)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찌라

2. 말씀본문 함께 읽기: 사무엘상 7:3-11

3. 여는 질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번치 않고 좋아하는 것(음식, 색깔, 취미, 배우...)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

(단답형으로 나누지 않고, 좋아하는 것과 그것을 지금까지 좋아하는 이유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4. 본문이해 (돌아가면서 한 문단씩 읽도록 인도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동시에 바알과 아스다롯도 섬겼습니다. 바알은 남편이고 아스다롯은 아내입니다. 바알은 비의 신이고,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입니다. 이 둘은 생산능력을 좌우하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한 숭배는 음란하고 외설적인 의식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렘 44:19)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금하신 온갖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이라는 이유' 농경의 신도 섬기고, 다산의 신도 섬긴 것이지요. 이에 대한 사무엘의 진단은 혼합주의 신앙으로 훼손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모든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미스바'라는 지명은 여러 장소가 있는데 이곳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에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결단하도록 했습니다. 전국적이고 거국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물을 부어 자신의 죄악이 물이 흐르듯이 떠내려가기를 바란다는 의미였습니다. 죄를 더 철저히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20년 전 패배의 악몽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날만 삼만 사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급한 중에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섬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자 결단하였습니다.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아닌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5. 말씀과의 만남:

- 1) 이상숭배하는 삶으로부터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순서는 무엇이었나요? (3 절)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는 것)
- 2)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에는 사무엘이 행한 어떤 조건들(2 가지)이 있었나요? (9 절)
(1. 온전한 번제를 드림 2.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음)

6. 삶 속으로 (적용질문 2 개, 각각 1-2 줄로)

- 1) 내 삶에 하나님 외에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누구)인가요?
- 2)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마음(온전한 번제)은 무엇을 통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온전한 번제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고백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교회, 가정, 직장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7. 암송구절: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사무엘상 7:3

8. 자녀와의 나눔 (40-80 자, 1-2 개)

1) 주일에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면 무엇 때문이었나요?

9. 기도제목 나눔

10. 찬양, 헌금, 헌금기도, 주기도

넷째 주 소그룹 모임

제목: 끝까지 순종입니다

1. 찬양과 여는 기도

찬송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새 200 장(통 235)

찬송가/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새 366 장(통 485)

복음성가/ 너 어디 가든지

2. 말씀본문 함께 읽기: 사무엘상 15:17-24

3. 여는 질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행했던(뺨뚫어졌었던) 일들을 나눠 봅시다.

(나누기 원하는 분 2-3 명 정도만 나누어도 좋을 것입니다. 때로는 돌아가면서 의무적으로 나누는 일에 대해 불편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4. 본문이해 (돌아가면서 한 문단씩 읽도록 인도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말렉은 '골짜기에 사는 자'란 뜻입니다.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디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창 36:12, 대상 1:36)입니다. 그리고 그는 에돔의 족장이었습니다(창 36:16). 성경에서 '아말렉'이라 함은 아말렉의 후손인 '아말렉인' 곧 '아말렉 족속'(Amalekites)'이라는 뜻으로도 자주 쓰입니다(출 17:8). 아말렉 족속은 약탈을 일삼던 고대 유목 민족으로서, 아브라함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주로 가나안

남쪽의 황량한 사막 지대인 네게브에서 살았습니다(창 14:7). 이들은 이스라엘과는 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최초로 공격하였고(출 17:8, 13 신 25:17-18), 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말렉을 철저히 멸망시킬 것을 명하였습니다(출 17:14-16 신 25:19) 하나님은 아말렉에게 회개 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오래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치 않자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여전히 회개 할 줄 모르는 그들 모든 백성과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철저히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남겨 두면 앞으로 두고 두고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사울은 마중 나온 사무엘에게 복을 빌며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적당히 순종한 것도 순종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죄악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승리를 위한' 하나의 조연자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교만한 죄악을 책망합니다. 사무엘은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소의 우는 소리는 어쩔이나고 물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자기 편에서의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향한 심판을 명령하심으로 왕되심을 보이셨으나, 사울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이 왕노릇을 한 것입니다.

5. 말씀과의 만남:

- 1) 아말렉의 양과 소를 진멸하지 않고 남겨 둔 이유에 대해 사울은 어떻게 다른 말을 하고 있나요?
(21, 24 절)

(21 절: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24 절: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 2)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말을 청종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4 절)
(자유롭게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백성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릴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인기가 떨어지고 백성들이 지지해 주지 않는 왕이 될까 두려웠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에게 융통성이 없는 왕이라고 손가락질 할 것을 두려워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6. 삶 속으로 (적용질문 2 개, 각각 1-2 줄로)

- 1) 내 삶에 마치 아말렉 족속과 같이 나의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고 발목을 잡는 끈질긴 대적과 같은 것은 무엇인가요?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죄의 습관이나, 음주, 게으름, 게임이나 드라마 중독.. 등)

- 2) 요즈음 성경 읽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듣고 있는 소리(말, 의견)는 무엇인가요?

7. 암송구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22a

8. 자녀와의 나눔 (40-80 자, 1-2 개)

- 1)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내 마음대로 했던 일이 있다면 나눠 봅시다.

9. 기도제목 나눔

10. 찬양, 헌금, 헌금기도, 주기도

다섯째 주 소그룹 모임

제목: 주님이 돌보십니다

1. 찬양과 여는 기도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새 370 장(통 455)

찬송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새 405 장(통 458)

복음성가/ 주 품에

2. 말씀본문 함께 읽기: 사무엘상 25:23-31

3. 여는 질문

지금까지 사는 동안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느꼈던 때는 언제이고 어떤 상황이었나요?

(어렸을 적 부모님과 보냈던 가정에서의 기억일 수 있고, 어떤 관계속에서 경험한 느낌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4. 본문이해 (돌아가면서 한 문단씩 읽도록 인도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눈에 보기에다 다윗은 마치 하나님의 '생명 싸개'에 싸여 있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29 절) 하나님의 몸에 친히 지니신 '생명 꾸러미' 안에 들어가 있으니 감히 누가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소중한 것을 보자기에 잘 싸서 보관하듯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 보호하고 계시니 염려할 것 없다는 고백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하고 있던 다윗에게 아비가일의 이 말은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비가일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열어 주셔서 그 입을 통해 다윗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나발을 향했던 다윗의 분노가 가라앉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자녀 삼으시고 그 분의 '생명 싸개'에 넣어 보관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더이상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의 생명은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졌습니다.(요 17:3) 마치 광야를 헤메던 다윗처럼, 우리가 아직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 상황을 만나며 위협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질병과 사건도 만날 수 있지만, 주님의 생명 꾸러미 안에 들어가 있는 주님의 생명임을 믿고 다윗처럼 주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시 23:1)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5. 말씀과의 만남:

1) 남편 나발을 대신하여 용서를 빌고 있는 아비가일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28 절)

(상상해 보세요. 남편을 살리고, 다윗을 존중해 주는 지혜와 예절이 보이는 여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2) 다윗이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보호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뇌리에는 어떤 장면들이 스치고 있었을까요? (29 절)

(상상해 보세요. 그 모든 쫓기는 상황들과 위험했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일들이 뇌리에 스쳤을 것입니다.)

6. 삶 속으로 (적용질문 2 개, 각각 1-2 줄로)

1) 최근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때는 언제였나요?

2) 다른 사람을 대신해 용서를 구하거나, 자발적으로 손해를 본 경험이 있다면 나눠 봅시다.

7. 암송구절: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싸였을 것이요.” 사무엘상 25:29a

8. 자녀와의 나눔 (40-80 자, 1-2 개)

1)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는 어디이고 왜 그렇게 느끼나요?

9. 기도제목 나눔

10. 찬양, 헌금, 헌금기도, 주기도